

문화예술 | Latin American Culture

[미국에서 활동한 히스패닉 아티스트 시리즈 ⑦]

멕시코계 미국인의 이유가 있는 미술

카르멘 로마스 가르사(Carmen Lomas Garza, 1948년생)

유화열



카르멘 로마스 가르사 <귀알이 치료법>(Earache Treatment/Ventosa, 1989), 캔버스에 유채, 43 × 38cm.

“아버지는 귓병을 앓고 있었고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일명 ‘옥수수 불’ 을 아버지 귀에 갖다 댔죠. 그 다음은 내 차례였어요.” (카르멘 로마스 가르사)

카르멘 로마스 가르사의 그림은 무척이나 수다스럽다. “어제는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뭐했는지 알아?” 이렇게 시작된 얘기는 그날 있었던 상황을 낱낱이 기록이라도 하듯이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어릴 적 텍사스에서 멕시코계 미국인으로 살았던 경험을 일상적인 이미지로 풀어낸 카르멘 로마스 가르사는 오늘날 이야기꾼 치카노 예술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녀와 같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히스



‘이야기꾼 치카나 예술가’로 통하는 카르멘 로마스 가르사에게 예술이란 생존에 대한 화두일 뿐이다.

패닉(또는 라티노) 예술가들에게선 20, 21세기 현대미술임에도 유독 ‘묘사’라는 수단이 돋보인다. 예를 들어 과달루페 성모님, 망자의 날을 위한 제단, 타말 만들기처럼 과거에서 가져온 너무나 뻔한 멕시코적인 이미지는 그들 예술의 단골 소재이다. 이주민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엇보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화적인 영토가 필요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어느덧 카르멘 로마스 가르사의 나이는 예순을 훌쩍 넘었지만, 그녀는 어릴 적 그 날로부터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우리가 다닌 초등학교에선 스페인어로 말하면 차별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우리 식구 모두는 스페인어로 말했고, 우리 동네에선 그런 게 당연했어요.” 그녀에게 인종적 차별과 편견은 너무나 큰 상처를 되었고, 그때부터 그림그리는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는 해결방안이 되어줬다.

나는 화가 많이 나있었어요

카르멘 로마스 가르사는 텍사스 주 킹스빌의 멕시코계 미국인 가정에서

서 성장했다. 비록 살고 있는 곳은 멕시코가 아니어도 가족들의 삶은 멕시코와 다를 바가 없었다. 축제 때가 되면 으레 이웃들과 명절음식을 나눠 먹었고, 그들끼리 스페인어로 말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어린 그녀의 눈에 세상은 집 담벼락을 나서면서부터 너무나 다른 세상으로 비춰졌다.¹⁾

“내가 자란 텍사스 남부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인종적 편견과 차별이 만연해있었어요. 우리가 다닌 초등학교에선 학교 어디에서고 스페인어로 말하다 걸리면 체벌을 받아야했으니까요. 어린 나이에 선생님에게 그런 대우를 받고 나면 몹시도 부끄러웠고, 어찌해야 할 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내 감정은 화가 아주 많이 나있었던 것 같아요. 억울했던 거죠.”

세상은 스페인어로 말해도 되는 곳과 그러면 안 되는 곳으로 나뉘었고, 슬프게도 그걸 깨달은 곳은 학교였고, 그때 인종적 편견이란 단어를 알게 됐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남동생이 학교에서 스페인어로 말하다가 호되게 야단을 맞았는데, 동생은 집에 돌아오는 내내 울음을 그치질 못했다. 그 후로 그런 일은 여러 번 반복되었고, 그렇게 해를 거듭해가면서 그녀의 학창시절은 분노와 갈등, 우울함으로 얼룩졌다. 학교에서 화가 나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그 사람들이 멕시코가 얼마나 대단한 문화유산이 가진 나라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다독여줬지만, 결국 다음날이면 그녀는 학교에 가야하는 것이 두려울 뿐이었다. “있었던 일을 다 고해바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스페인어로 시작된 독백이 차츰 그림으로 옮겨갔다. 일종의 그림일기처럼 학교에서 겪었던 그때의 차별들을, 참아야만했던 수많은 일들을 기록하는 일은, 그녀의 숨통을 트여줬다. 그때가 13살 무렵이었다. “매일같이 그림 그리는 걸 낙으로 살았고 그 후로 쪽 예술가가 되기로 마음먹고 (막연히 되고 싶은 꿈은 아니었다. 왜 그래야하는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술에 대한 이해를 획득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1) 카르멘 로마스 가르사의 삶에 대해선 웹사이트(carmenlomasgarza.com)와 몇 편의 저서를 참조했다(Garza, Carmen Lomas. *A piece of my heart : the art of Carmen Lomas Garza*, New York : Norton, 1994).



카르멘 로마스 가르사 <다 같이 타말 만들기>(Tamalada, 1988) 목판 위에 유채, 60.9 × 81cm., 개인소장. 그녀의 그림엔 전통, 기억, 일화로 가득하고, 일상에서 반영된 이미지와 공동체의 정체성이 주는 감성, 자긍심으로 가득차고, 문화적인 흥미로움 그리고 원근화법으로 그려진 화폭 속엔 믿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녀의 그림그리기엔 다분히 감정이 쏟아졌던 터라, 정규과정의 미술수업과는 비껴나있었다. 고의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미술양식이나 기법과 일정 거리를 뒀고, 독학으로 해결해나갔다. 그녀의 예술적 시선을 붙잡아 준 이는 다름 아닌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타고난 이야기꾼이었고, 식구 모두를 한자리에 결집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게다가 할머니는 모임이 다 끝난 후에 그 날을 회상하며 들려주는 말 속엔, 누가 어디서 뭘 했는지 아주 구체적인 동작이 담겨있고 그럴 때면 그녀에겐 한 장의 그림처럼 펼쳐졌다. 이런 연유에서 그녀의 초창기 회화엔 할머니의 시선이 여과 없이 표출되어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정원에서 어떻게 나무를 다듬고 있었는지, 가족들의 저녁 식사 때 뭘 먹었는지, 파티에 온 삼촌 부부가 어떤 춤을 췄는지까지.

그밖에도 수시로 도서관에 들러 멕시코의 예술가 가운데 누가 유명하고 훌륭한지에 대해 혼자서 공부해나갔다. 매일매일 반복적인 그림 연습을 놀라울 정도였으며, 다음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꼭 점검을 받곤 했다. 친구들이 자신이 그린 그림이 뭘 표현했는지 알아볼 수 있다면 성공한 그림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치카노 운동이 그녀에게 미친 영향

카르멘 로마스 가르사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중 미군 해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었는데, 퇴역 후엔 아메리칸 재향군인회(AGIF: The American G.I. Forum)를 통해 라티노의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를 성토했다. 부모님은 재향군인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으며, 그런 날이면 라티노/라티나가 결집하여 지역사회에 기부도 많이 하고 공헌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투표가 있는 날이면 길가는 사람들을 붙잡고서 라티노를 위해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력할 정도였다(수십 년에 걸친 이민자의 권리주장은 임금투쟁을 비롯해 교육 및 정치 문제로까지 다각도로 확장되었다).

부모님과 함께 한 아메리칸 재향군인회 활동은 그녀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음은 당연지사였다. 이런 배경은 그녀로 하여금 1960년대 70년대 뜨겁게 일어났던 치카노 운동에 투사하도록 했다. 1965년 농장노동자 조합(United Farm Workers)이 결성되어, 이를 계기로 치카노 운동이 붓물처럼 일어났고, 그녀가 사는 킹스빌을 거쳐 가는 대장정의 거리행진을 볼 수 있었다. 과달루페성모님의 깃발이 휘날리고, 집에서 봐왔던 수많은 멕시코 이미지들이 휘날리는 것만으로도 치카노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을 단박에 깨달을 수 있었다. “1966년엔 멕시코에서 이주한 텍사스 농장노동자들이 시간당 최저 임금 1.25달러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어요. 3월의 봄날 우리 식구는 농장노동자 시위에 참여했고, 그들을 열렬히 응원했어요. 시위를 이끌었던 운동가들은 멕시코 이주노동자의 합법적인 신분을 주장했을 뿐인데, 텍사스 경찰은 불법 파업이라는 명분으로 마구 폭력을 휘둘렀

어요. 어느 누구도 유색인종을 제 마음대로 체포한다거나 구타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는데 말이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의 현장에 있으면서 그녀 스스로가 말하듯 치카노 예술가가 되는 것에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나에겐 그림을 그려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매개물로서의 그림이 필요했던 거죠. 말하자면 우리의 문화, 언어, 관습, 표현 방식이 어떤지를 알릴 수 있는 고유한 예술을 꺼내야할 필요를 느꼈던 거죠.”

치카노 운동은 그녀가 멕시코계 미국인의 특별하면서도 일상적인 삶을 묘사하기로 한 결정적 계기였다. “싫다고 무조건 저항하는 것보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주장할 줄 알아야 해.” 멕시코계 미국인의 자긍심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집에서 어머니가 보여준 일상의 문화적인 태도를 부각시키고, “뭘 의미하는지 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작품에서 실제로 구현하고 싶은 것이에요. 행여나 치카노 운동의 정치적 성향이 강렬하게 이식된 예술작품에, 혹은 멕시코계 미국인의 삶이 지나치게 고통스럽게 묘사된 것에 고개를 돌리고 싶은 멕시코계 미국인 관객을 한 명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면 치카노 운동의 정신이 나의 예술을 키워냈지만, 치카노 예술의 정치색이 나로 하여금 점점 더 일상적인 것으로 몰입하게 한 듯싶어요.”

사실 그녀의 그림은 치카노 그림하면 떠오르는 선동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 “나는 대다수 치카노 예술가들의 정치적인 성향(억압받고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위대한 멕시코 벽화를 승계하기 위한, 아니면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이미지)와 다른 걸 원했었어요. 식구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타말을 만들고, 할아버지와 내가 정원에서 얘기하는 풍경은 마치 연극 무대처럼 펼쳐놓은 듯하지만, 거기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 탓에 나의 작업은 명백히 정치적이지는 않지만, 좀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방법으로 문화적인 충격을 전달하기를 원했어요. 사실 우리들 중 몇몇은 우리의 전통을, 언어를, 음식을 대놓고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이들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



카르멘 로마스 가르사 <보드게임 판>(Lotería a-Tabla Llena/Lottery-A Full Board, 1972), 종이 위에 에칭, 수채화, 스미소니언 아메리칸 미술관, 그 시절 어머니는 딸이 그림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나서 멕시코계 미국인 사이에서 매우 대중적인 보드게임 판을 직접 그렸다. 일상적이고 문화적 전통에서 가져온 이미지만으로 그녀 집에만 있는 보드 판이 만들어졌다.

습니다. 왜냐면 보통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부리토와 타코, 멕시코 음식, 쿠바와 남미에서 온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요. 먹는 것은 되고, 문화적인 것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녀가 대학에 진학했을 무렵 치카노 예술가로서 과연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을 때, 아주 우연히 어릴 적 갖고 놀았던 보드게임 판이 떠올랐다.²⁾ “어릴 적 우리 집엔 보드게임 탁자가 있었는데, 사실 교육에 열성인 어머니의 창작품이었죠. 딸이 허구한 날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2) 카르멘 로마스 가르사는 텍사스 A&I(오늘날 텍사스 A&M) 대학에서 회화, 판화를 비롯한 미술교육을 전공했다. 1969년 대학시절에 멕시코계 미국인 청년회를 통해 그녀의 첫 전시회를 가졌다. 1972년 학사학위를 받은 후에 오스틴으로 자리를 옮겨 미술교육자로서 활동하고, 산 안토니오의 미술그룹인 ‘로스 케마도스’(Los Quemados, 갤러리와 미술관의 제도적 미술에 배타적으로 도전적인) 회원들과 교류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그녀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 바탕을 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카르멘 로마스 가르사 <결혼식 날 풍경>(La Bendición en el Día de la Boda, 1993) 캔버스에 아크릴. “내 예술엔 우리 가족이 들어있어요. 그 날 가족 모두가 뭘 했는지 아주 직접적이고 상세한 묘사는 내가 원하는 예술입니다. 물론 어른의 시선이라 보기엔 어렵지요, 어릴 적 내가 바라봤던 풍경이었고, 나의 기억입니다.” (카르멘 로마스 가르사)

조금이라도 전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거죠. 게임 판은 어머니가 직접 펜과 잉크로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 아직도 어떤 그림이었는지 선명하게 기억나요. 게임 판이 떠오르자마자 어머니에게 달려가 제발 구닥다리 탁자를 나에게 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동안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걸 말이죠. 뭔가 알 수 없는 기운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았고, 나는 정신없이 그 오래된 탁자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나의 어머니는 독학 예술가에 가까웠어요. 그녀는 그림도 그리고, 종이꽃도 만들고, 자수도 놓았어요. 솜씨가 아주 좋았고, 동네잔치가 있는 날이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온갖 일을 도왔지요. 특히 크리스마스의 예수탄생장식은 모두의 탄성이 터졌지요, 11월 2일의 망자의 날엔 제단을 꾸미느라 며칠밤낮 정성을 드리는 것은 보통이었지요.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종이꽃을 뜨거운 왁스에 담가 굳히는 일은 우리가 맡은 일이었는데, 그 꽃을 들고 묘지에 가던 날을 잊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꽃으로 하나둘씩 묘지를 장식하는 동안 어른들은 묘지에 묻힌 분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지요. 우리 가족의 역사에 대해서도…….”

〈결혼식 날 풍경〉(La Bendición en el Día de la Boda, 1993)은 그녀가 기억하는 사촌의 결혼식을 재현한 것이다. 그녀의 방 안에선 어른들 모두가 사촌의 웨딩드레스 치장에 온 정성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방 안 풍경이 고스란히 공개되었다. 과달루페성모님을 모신 작은 제단도 보이도, 어릴 적 그녀가 애지중지 여기던 멕시코 인형들도 보인다.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의 배합은 멕시코를 상징하는 이미지였고, 언제 어디서 볼 수 있었다. 그녀가 훗날 전시회 오프닝에, 중요한 강의가 있을 때마다 빨간색 블라우스를 즐겨 입는 것도 그녀 자신이 그림 속으로 동화되고 싶은 의도가 있다.

예술에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고, 이뤄야할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현 히스패닉 예술의 특징이다. 그들에게 예술이란 뭐 거창하게 세상에 없는 단 하나를 만들겠다는 야심 따위는 찾아보기 힘들다. 어떤 이는 현실에 처한 문제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현장의 목소리로 외치고, 카르멘 로마스 가르사와 같은 예술가는 멕시코의 문화유산에 대해 공부하고 그 안에서 교육적인 의미를 찾아나간다. 그런 연유로 아스테카 문화의 고문서(códice)도 떠오르고, 레타블로의 민속적 형식도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다. 그녀 자신이 경험한 어릴 적 기억과 멕시코계 미국인 공동체의 결속력을 의도적으로 문화유산과 연관 지음으로써 그녀의 예술은 ‘특정 사회 분위기를 문화적으로 양식화한 구상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화열 -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LLILAS) 방문학자